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안병단
편집인 김태홍
주필 김민홍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961-4183(FAX계부)
화재보험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1
인쇄인 송재봉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주간]

THE OE DAH HAGBO

제652호 1995년 10월 31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지면안내

3면(심층보도)
학부제 도입 문제점
인방적으로 추진된 학부·계열화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4면(학술기획)
제2의 중화주의를 꿈꾸는 중국에 가다 ①
중국식 사회주의가 중국 사회전반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정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5면(학술집행)
학술계 집행현황과 전망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종합학술계의 준비현황과 학술운동의 의의를 살펴본다.

6면(생활문화)
생활 사무국장 박수만씨를 만나다
생활 운동전반에 관한 총학생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생활 사무국장의 의견을 알아본다.

7면(문화)
우리문화실랑리(2) 음악·공예
문화예술의 발전에 결실물이 되고 있는 문화관련의 심의제도를 알아본다.

8면(사회보도)
경기도 금정굴을 찾아



1천9백여구의 시체가 발견된 금정굴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9면(사회기획)
박정희 교수 기획
박교수의 32년 사진총정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성고광년의 부당성을 알아본다.

10면(대학기획)
5-31교육개혁안을 진단한다①
'열린교육'을 통한 교육복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안의 의의와 추진일정, 기대효과를 알아본다.

내년 비어문계열 학부제 시행 학생회측, 학생의견 수렴 요구

서울대, 연·고대 등 61개 대학이 학부제 도입을 다뤄 발표하는 가운데 학부제 도입 유보의사를 밝혔던 분교가 지난 25일(수)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서울·용인 비어문계열 6개대학 22개교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부·계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96년 신입생부터 '학부·학부' 모집이 시행된다. 대학당국에 발표한 학부제 도입 단과대를 보면, 서울캠퍼스 정경과와 상경대학은 사회과학계열·상경계열로 바뀌고 용인캠퍼스 경상대학은 경상계열로 전환된다. 또한 인문·자연대는 인문학부·자연과학부, 정보산업공과대학은 전자계어공학부·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서울캠퍼스 교수회장 정영준(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의 기회를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정

박교수,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가족·변호인측 항소 준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원 부장판사)는 20일(금) 간담회로 구속기소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분교 박정희(63, 사학파)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누설죄와 회화·통신죄, 감금·탈출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9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교수는 인문·국대 유수대학의 중견교수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북한공작원과 접촉, 공작금을 받고 국내정보를 전한 것 등이

ID카드 접수 31일까지 내년 3월 도서대출 가능 견비

지난 16일(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학생용 ID카드 1차접수가 오는 31일(화) 마감된다. 접수는 각 과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기재하고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을 구비하여 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학생자는 1차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오는 12월 초 2차 접수기간을 풀 예정이다. 이 ID카드를 내년 3월부터 도서관 전자대출 및 도서대출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견비되며 96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일괄적으로 발급된다. 이와관련 서울캠퍼스 학생처



96년 신입생부터 시행되는 비어문계열 학부제, 공개적인 논의없이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총련, '학생의 날' 총결기대회 각 대학 5·18 투쟁 보고 예정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오는 11월 3일(금) 학생의 날을 맞아 대규모 총결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일 각 대학 총학생회는 대학별로 결의대회를 갖고 선전전을 벌이면서 대회장으로 모이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학교 5·18투쟁발 전경 투쟁 결과보고가 이뤄지고 11일에 치러지는 선거기간 동안 집중 선전전을 함께 벌일 것을 결의할 계획이다. 또 이 밖에도 12일(일) 전선되는

의 결과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지금 우리는 '5·18책임자 실려내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듯하다.

너무도 뻔한 이야기

▲요즘 TV드라마를 보다보면 내용이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등장인물 사이에 드러나는 실리적인 갈등들이 이후 일어난 일 사건들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드라마 내용이 '사랑', '이별'이라는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도 시간대가 되면 어김없이 TV를 켜고 '젊은이의 양지'와 같은 드라마를 흥이있게 지켜보는 것을 보면 정말 이따가나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어떠한 시기가 되면 또 어떠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면 어김없이 한나라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언론을 통해 실려버린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드라마의 각본은 정부에 의해 짜여지는 것이기에, 이후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스쳐지나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지역속에서 되살리며
있고 있었던
당신의 꿈을 이야기 하십시오

학술상 모집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부문(원고 800대 내외)	문학상 모집분야: 시(3편이상), 소설, 평론, 희곡, 번역, 수필 등 (원고 700대내외)
--	--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 마감 일: 11월 28일
- 제출처: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 연락처: 서울 ☎ 961-4152, 4183
용인 ☎ (0331)30-4112

민족자주연
외대학보

사설

학부제 도입, 성급할 필요없다

지난 22일(금) 전체교수회의에서 본교 비학부제 6개 단과대학 22개학과와 공과대학 학부·계열제가 결정됐다. 드디어 본교에도 학부제 바람이 불 것이다. 98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고 하는 학부제는 도입이후부터 평가 순서가 어긋남 감을 많은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대학당국이 학부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어떤 의도로 도입하려 하는 지 그 목적부터 분명하지 않다. 학부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 토론의 과정이 생략되고 '한마디'라는 명령어만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이다.

98년부터 실시한다는 각 학부·계열에서 공통과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2학년 들어서 전공이 나뉘는 데 전공에 따른 인원 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본래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손잡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비학부제일 학생들의 의견은 듣거나 보거나? 빠른 시행을 추구하다 지기 지시할 경우 그 피해를 입는 대상은 98년도 신입생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학부제 도입이 추구하는 의의와 살피기 위한 수렴반으로 고인된 것이므로 주장하지만 잘못된 수월로 인한 학생들과 교수의 조심을 없애고만 안하느라만 못하다. 오히려 병행해 학사시킬 수도 있고 교재와 강의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것을 대학당국에게 당부한다.

노씨는 법앞에 성역인가?

'이라는 사람이 요정처럼 매주 1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돼 4천억이 조성됐다.' 1조원인 우리 나라에 고속도로 4개를 놓을 수 있다.

요즘 4천억·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다른 용도로 환산하는 것이 유행이다. '4천억이면 무엇이었을 하는데...' '우리 남편 비상금은 4천원이다.'

불가치 너무 올라 시중버니를 가뭄해 하고 소주 한잔 걸칠 때 다시 한번 주머니를 파헤쳐보는 서민 입장에서 이 사건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는 어찌하지 않는 일이었다. 더구나 이번 '같은 돈'이 정치권을 할리화시키기 위한 애초에도 없었던 '뭉치기' 문호처럼 거론되는 것은 국민을 더욱 웃음 주는 것이다. 특검은 돈인데 단언할 싹박 바꾼다고 해서 그 돈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난 22일(금)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노씨는 "어떠한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소환돼 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부에서도 "법치 재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연희동의 정부에 대한 반박까지 준비해 왔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노씨가 검찰상대방이 캐치나 순방에서 들어오는 즉시 '이 비자금은 98년 대선 당시 김대중용 선거자금과도 관련이 있다'는 카드를 내민어 사법부에 대해 당담을 짓겠다는 것이다. 사과문 발표와 측근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반대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이렇게 뚜박한 죄명라도 정치적 협상으로 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처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몇몇몇 전 한국통신 사건과 관련, 명동성당에 전경들이 난입했을 때 김경삼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생각난다.

"법 앞에 성역 없다." 이 말이 명동성당 뿐만 아니라 노씨의 경우에도 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경림이 흥 한 조각 흥타령이 있던 육살이었던 프랑소 소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열린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외대에는 공동체 실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백석 원고지 4~6에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누세요.

체면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리인 OEDAE, 하이텔 OEDAE, 나무누리 OEDAE 모두 동일)

원고에 소속 과·학년 이름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열린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십시오.

실형실습 기자제 적극 투자해야

1학기 서울·유인 양캠퍼스 총학생회장의 보물창고인 단적으로 연이연 내년 6월 상과중 하나인 대학원국이 신문방송학과 실형실습 기자제를 마련해 준다는 행적이다. 화과장과 과학생회장이 협의해서 결정하여 2학기 내에 설치를 완료기로 돼 있다.

기타이나 실형실습 기자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신방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의 실형·실습이 정식 커리큘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화회조직과 개인적인 노력에만 의존해왔으며 미비한 기자제까지 사적인 구입에만 의존해 왔던 현실에 비하면 분명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까지 신방과와 상 황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분명 등록금에 포함된 신문·방송에 대한 실습은 모두 학생들의 사교육비로만 충당되고 수업시간에는 교과 교재와 강의로 이어지는 수동적인 지식습득만이 이뤄지고 있다.

98년 예산에는 실형실습비까지 8천2백만원으로 책 정했다. 그런데 1년동안 신방과에 지급되는 돈은 6백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2백만원의 간사초 병에 사용됐다. 용인의 사회화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한계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신방과와 실형실습에 투자하는 것에 대학당국이 매우 인색하다는 인상이 짙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우수한 기자제가 들어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될 수 있을지는 확실할 수 없다.

실형실습 기자제는 한번 도입되고 나면 그걸로 끝은 아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한번 구입한 뒤 적절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외대 실업자를 길은 지역화라고 한다. 이런 때 비학부제일 화과는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기 쉽

다. 이번 신방과 실형·실습 기자제 도입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이뤄서 실습교육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나아가 그 공간·기자제를 가지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자체의 변화도 기대한다.

이 문희 (정경·신방 2)

외대대학보를 읽고

대학당국과 함께하는 의대발전

지난 10월 10일(화) '외대발전'을 위한 세기 지 제인'이라는 제목으로 대학기획팀이 싣던 학생 신생년의 글에 대한 몇가지 반응을 제기하고 싶다.

먼저 언뜻와 계열의 졸업은문제도 실시 문제인데, 이것은 옳은 지이다. 졸업은 앞두고 학생이 지기 선택한 화과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학생 스스로 사유와 논리를 진전시키는 데 커리큘럼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 논리적인 장편의 글을 쓰는 데 익숙하지 못한 것은 졸업시험제도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의 총체 적인 교육 모순에 기인한다. 또한 막상 졸업논문 제도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학생들 지도 교수님들을 선택할 수도 없고, 대학원처럼 깊이있는 지도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단지 '학사숙제'에 적합한 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토익이나 토플을 졸업과목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학생생명이 지양해야 한다고 제기한 '외대의 외국어학원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길이다.

기타이나 취직난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영미만 공부하고 전공과 교양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토익·토플의 졸업과목화는 지성의 상아탑이아 할 대학을 조리한 외국어학원화'를 만드는 꼴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전학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는 문제인데, 그 취지로 보자면 세기 지 중 가장 발전적이나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불

7x7=49, 우리는 49년 무쟁을 맹세합니다

우리 수업도 14년간 정지?
-G.96-
라키 세븐이라는데... 혹시 무죄석방을 위해서?
-비보-
그런, 밥은 우리 아버지 세습으로?
-왕세금남제자의 아들-
그럼 우리는 몇년?
-전-노-
박정희교수님이 정역 7년이면 5.18파살자는???
-노어과 특일아-



주제: 박정희 교수님이 정역 7년, 지적정지 7년을 선고받으셨다는데...

이기범 감사

-95, 선봉대-
잠사 네 얼굴에 침을 뱉어라.
-개-
전·노 대통령은 불교사관령을 밟았다는데...
-95, 비보-
라키 세븐이 들어내요, 희망이 보입니다. 교수님, 합내세요.
-95, 동글이-
일곱년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라. 피리를 불아 깨우라 왕노아

가능하고 또 가장 심각하기도 하다.

대학을 들어와서도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학비 마련이 빠듯한 마당에 가난한 신입생이 돈을 어디 구하든 해 컴퓨터 구입문제 하나도 뒷걸음질만 순해버리고 박정희가 정역 7년이면 5.18파살자는??? 노어과 특일아

맛달인다면, 학생생명의 세기 지 제인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므로 전 학생들에 실시하지 않고, 지 원자만이 특권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고가 이러한 점을 만들어 학생들이 대외로부터 자유와 더불어 유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바이다.

김지숙(대학원 불어과 94학번, 휴학)

쓰레기소각, 환경오염 주범

공기 맑고 경치 좋기로 유명한 용인캠퍼스이지만, 최근까지 시커먼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연기이다.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가장 치명적인 성분은 다이옥신이다.

다이옥신은 벤젠과 염소의 화합물로 인후역사 상 가장 유독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까맣은 쓰레기 중 플라스틱에 염소가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상대로 임상실험한 결과 다이옥신은 인과 피부질환을 유발하며, 기생아를 낳거나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용인에서는 계교 아래로 엄청난 쓰레기 거리를 대응중장 밑에 쏟아졌고, 나머지 쓰레기는 소각시설도 없이 한데 모아, 장류물 부어 주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얼마전엔 인근 사회대 뒤에 전문 소각시설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다이옥신은 거의 분해가 안되는 물질이라 이 소각장이 얼마나 안전할 지 의심스럽다.

대학당국은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않고 분담금 연수가 커야 때'이라며 소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당국의 성의 문제이고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않는데 대학이 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이에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쓰레기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숙사를 포괄하여 법학대학 차원에 분리수거를 시행해야 하고, 음식 쓰레기는 비료·사료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학당국은 적극적으로 용인군 및 재활용업체와 교섭해야 한다.

분리수거에 따른 청소노동은 교직원과 학생, 교수가 적극 참여해야 하며, 한탕제를 비롯한 10여

개의 타학과와 같이 사회봉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재활용에 관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전 외대인의 지성을 촉구한다.

이동훈(사학·리시어 4)

비자금, 그 싹새 밝혀져야

어느 때부터인가? 노태우 정권이 풀러나 다음부터 각종 기업 비리가 터져 나올 때때로 '검문'이 이 문제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그러한 검문에는 대한 정치권의 시선이 없다는 것이 5, 6급 세력에 대한 정부의 견제, 최후의 과정으로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노 말미암아 대부분의 비리 사건은 '비록 시작은 얄때 하더라도 그 끝은 미미하다...'로 귀결되었으면 현실과 정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증폭됐었다.

그런데 검찰이 밝혀져 나온 박정희 의원의 폭로는 3백억원 처분과관련한 실물증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4천억 비리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도 그 3백억원에 대한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그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관변태라 한다면? 근절이게도 성역, 성역하며 그 진상 조사와 사법 처리가 거부되었던 예전의 상황에서 지금의 재판비리라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5.18 문제 처리와 각종 사건에서 보이는 정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정당 내내, 내무년의 총선과 대선을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4천억원의 비자금들을 추적 하는 것이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에 호환해 한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형사적으로 존재하는 정치 비금이 그들의 기업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가? 정경과 재벌들의 공생 관계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일 것이다. 이는 4천억이라는 노후연금'을 형성한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현재의 검찰상 정부에게서도 보여지는 문제이다.

예전의 정치자금 대공전은 것은 재계에 있어 예산은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였다.

결국 이러한 정부와 재계의 결합은 그들의 모순적 자본축적 과정 자체와 부합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벌들의 자본중심의 논리의 정부와의 결합을 통한 국민들의 착취에 다른 야망을 알 수 있다.

3백억? 4백억? 8백억? 4천억? 아니면 수조원? 얼마나 풀어야 할 지 모르겠다. 일단 꼬리에는 잡혔다. 도미반 꼬리잡기, 공룡의 꼬리인지는 밝혀 낼 문제이다. 정부의 행방은 판단이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그 처벌이다.

김윤식(서양·영어 4)

특자는 반평



△문은 X가 ○물은 X나 무라한다.

해경 준(법·법학 2)

포스코에서 세계와 만나십시오

포스코맨의 이름으로 세계정상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십시오.

포스코맨이라면 세계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철강사업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정보통신분야까지 포스코가 세계적인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갈 진취적인 젊음을 기대합니다.



대졸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자격			
구분	모집분야	인원	응시지역
기술계	기계, 전기, 전자, 제어·계측 기술, 재료, 도금, 금속, 컴퓨터, 건설	600명	● 해외(미국 또는 중남미) 학사(석사학위 취득)자 및 95.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 영미권(영어) 전문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영미권)에서 근무한 자
사무계	철강, 법철, 인문, 사회, 예문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직무능력평가, 이력, 면접			
3. 서류제출			
● 제출서류: 인사지원서(회사 소정 양식), 전학내 성적증명서 부			
● 지원서 교부처		지원서 접수	
● 각 대학(원) 학과사무실 또는 취업보도실		● 기간: '95. 10. 26(목) ~ 11. 10(금)	
● POSCO Center (강남구 대치동 삼성역 선릉역 중간)		● 접수시간: 우편접수 가능	
● 공채담당자 인사팀		● 접수처: (135-7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92번지 포스코 센터 포스코인력관리위원회	
4. 기타사항			
●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시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함			
●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사무 문의 바람 (문의처: (02) 3457-1666)			

포스코인력관리위원회

공통응시처 포항제철, 포스코기계,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트레이드, 포스코시스템즈, POS-A.C.

□ 학부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협의 배제된 갑작스런 도입

공청회·설명회 통한 인식의 틀 제공돼야

‘과대 보직교수들의 자진사퇴, 1972년 비정규직경쟁 때 시행했으나 문제제기의 양산으로 80년 폐지된 안, 상대·세종대 등이 학내분규’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의 공통분모는 “학부제”이다.

본교도 지난 25일(수)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학과통합과 연계·별면 학부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캠퍼스 2개 단과, 용인캠퍼스 4개 단과의 학부·계열모집이 96학년부터 시행된다. 대학당국은 범 정부차원의 교육개혁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추진한다는 취지로 “학내 대는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제 도입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은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본교의 학부제 도입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도입과정상의 문제이다. 상경계열학을 표방한 상경대학과 무역학과 화과장 김민석 교수는 “상경대의 학부제 논의는 상대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로 지난 14일 부터 화과장의 등을 통해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학부제의 논의과정은 결코 투명하지는 않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며 “변개방에 관해 막는다는”라는 인상을 갖게한다.

둘째, 학문적 연관성이 적은 학과간의 통합문제이다. 정치외교학과·신문방송학과·행정학과로 이뤄진 정책학과와는 93년부터 사회과학계열로 변경됨에 따라 신입생들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들어야 한다. 이에 이경수(정치·신방 3)군은 “학문적 연계가 전혀 없는 학과를 어떤 방법으로 묶으려는 지 대적이 안된다”라며 학부제 계열화 모집의 근거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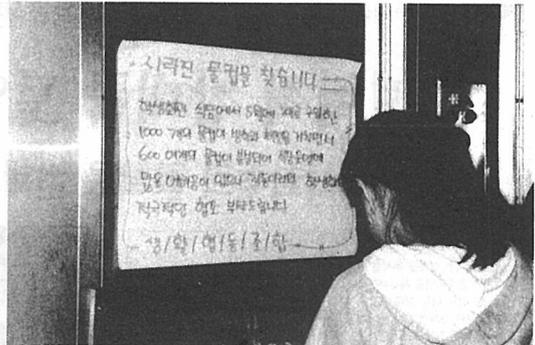
셋째,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학부제 도입과정 상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부제 도입에서 결정적 지 대학당국만의 의견이 들어 있는 이번 개정에 대해 남용호(인

문·사학 1)군은 “학부제가 뭔지도 모르고 득과 실이 어떤 지는 알수 없는데, 갑작스레 과거 사라진다는데 내년과 후해를 기다리던 실재입도 이런 버려야겠다”라며 허탈한 심정을 밝혔다.

구체적 시행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대의 학부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평판치

민을 앓을 행로를 기화하고 있다. 도입 결정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완전 배제된 채 진행됐지만 앞으로의 학부제 실시과정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우선시되고, 학부제 공청회·설명회 등을 열어 학부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인식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사라진 물컵
응원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새로 구입한 물컵이 매번 6백개 이상 분실되어 공공물품에 대한 학생들의 주인의식이 강하게 요구된다.

정유경 기자

용원직, 열악한 밤샘 근무

민형대서 등 노동사무소에 고발해

김은주양의 부당해고에 대한 대학당국의 재심청구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캠퍼스 용원직도 근무하는 민형대(인문 1)군은 안내산씨가 속·일직 문제로 지난 7월 중순 서울캠퍼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형대씨는 82년 본교에 입사해 각 건물부의 감의, 열람실, 화장실 등을 청소·관리하는 용원직 근무자로서 현재 정년을 석달정도 남긴 상태다.

이런 그가 부적응을 핑계로 한 번씩 연속근무해 해고 되는가? 둘째, 단순 속직이 아닌 근무를 병행한 것은 시간의 근무로 임금의 100-1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 셋째, 해고 때면 이다. “못배웠다”는 이유만으로 33시간 연속근무해도 불평없이

있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고 있던 김은주 양은 용원직 근무의 경우로 보면 “속·일직”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민형대씨의 진정서 제출의 배경이다.

민형대씨가 제기한 4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속직에 대해서 사회과학관 용원직근로자는 “한 건물이 담당원이 3명이면 3일에 한 번씩 일하는 것으로 사실상 근무는 10시간 정도만 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 이혜숙에서 다른 시간의 근무편성은 아직 용원직 근무자들과 맞물려 대학당국의 입장이 명확치 않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민형대씨는 “8월 23일 이전의 속직일지에는 ‘참소 및 진정서제출’이란 란이 있었으나 진정서제출 이후에 참소가 빠지고 ‘간섭금지’이란 란도 변경됐

다”라며 속직과 노동이 병행됨을 가리기 위한 대학당국의 은폐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학당국은 뚜렷한 입증자료 없이 “용원직 근로자의 억지”라고 답변하는 정도다. 연초에 진행된 노동조합 개편시 기능·용원직 호봉제 실시를 반대하는 민형대씨, 사무보조원 김은주양의 결혼제지, 33시간 근무하는 용원직에게 대한 처우의 열악함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지난 28일(토) 양측의 입장을 묻는 심사이후 이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뚜렷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보인다.

사회보다도 더 불평등하고 모순투성이 직원의 근로조건·환경이 개선될 것을 시급히 촉망한다.

김재경 기자

□ 열린총장실(10/25)

“단체·취업정보 게시판 설치할 터”

이번 열린총장실은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해 러시아어과 학생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 복지사업 △동아리 지원 실태 △교양과목의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중우(서양·러시아어 3)군은 “교내에 있는 알람벨이 조잡하므로 백분문화 학생을 위해 콘크리트나 철재로 된 알람벨을 설치하자”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 관계자는 “연체에서 대학당국으로 의뢰가 들어와 단체별로 설치하고 정책과와도 건물 앞에 취업정보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김오을(서양·러시아어 1)군은 “외사선과 같은 대외적인 체육행사 있었으면 한다”라

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안홍장은 “어려움이 많지만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동휘(서양·러시아어 1)군은 “교양과목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 하기도 했다.

헤드부부 회장 송익환(동학·중국어 3)군은 “오는 3월(금) 한 일 친선 교류전을 기획하고 있는 데 운동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합속소를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운동부 동아리들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관해 안홍장은 “교수연구동이 만들어지면 고려해 보자”라며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오은진 기자

96년도부터 시행될 실용영어의 특징은 △강사당 학생수 30명 이하 △월·수·금 또는 화·목·토요일 각각 1시간의 강의 △강사의 강의평가제에 의한 선발제 지원 등이다. 또한 실용영어에 학교당국은 1.2학년 학기에 주당 3시간씩 12시간을 할애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

한편 96학년도 1학기는 서울캠퍼스는 월·목·금으로, 용인캠퍼스는 화·수·금으로 시간표가 만들어졌으나 2학기부터는 원래의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실용영어부장 김재민(영어교육과 화과장) 교수는 “96년도 신입생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의 강의태일을 들는 예습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강사와 토의하는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수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강의의 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며 학습방법에 관해서 말했다.

실용영어 학습 방법은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 성과는 뛰어난 방법이며 “그 성과는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

실용영어, 학습률 상승 기폭제로

강사공개모집·강의 평가제 실시 계획

96년도부터 시행될 실용영어의 특징은 △강사당 학생수 30명 이하 △월·수·금 또는 화·목·토요일 각각 1시간의 강의 △강사의 강의평가제에 의한 선발제 지원 등이다. 또한 실용영어에 학교당국은 1.2학년 학기에 주당 3시간씩 12시간을 할애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

한편 96학년도 1학기는 서울캠퍼스는 월·목·금으로, 용인캠퍼스는 화·수·금으로 시간표가 만들어졌으나 2학기부터는 원래의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실용영어부장 김재민(영어교육과 화과장) 교수는 “96년도 신입생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의 강의태일을 들는 예습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강사와 토의하는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수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강의의 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며 학습방법에 관해서 말했다.

실용영어 학습 방법은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 성과는 뛰어난 방법이며 “그 성과는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

들의 강의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로 우수강사를 선정해 강사로 인장뿐만 아니라 강사책상을 주는 등 여러가지 차별적 대우를 할 예정이다. 이는 강사대우의 경쟁체제로 달라질 모습을 보이게 하며 지금까지의 강사비리의 강에서 학생들의 강의체제로 바뀔 것이다.

96년도 1학기의 강사채용은 현재 출강중인 강사는 자신이 원한다면 모두 채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하여 모두 준비된 상태이다. 김교수는 “그리고 앞으로 강사는 본교 영어과 대학원을 나오고 실용영어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또한 강사교육은 학기 시작전에 이틀정도 모여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교수는 “실용영어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외대내 모든 영어 학습을 높이는 것”이라며 “실용영어 도입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16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진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은진 기자



불심검문
지난 20일(토) 경희대로 예정되었던 김선명에게 최만을 겨냥하여 통일을 위한 주제를 내건 장기수 추후공연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학생들을 불심검문 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

부장님께 인터넷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이 부장님께 인터넷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서 머리의 반천을 담당합니다. 신입사원과 고참사원이 서로 이해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곳- 한중 어업소입니까? 이런 회사라면 권장은 적당하십니까?

한국중공업에 도전하십시오

대졸신입사원·연구요원 모집요강

1. 모집부문, 연봉 및 용사자격

모집부문	연봉	용사자격
인사팀	기초: 2,100만원, 2차: 2,200만원, 3차: 2,300만원	1. 초·중·고졸, 2. 1995년 11월 15일까지
연구팀	기초: 2,100만원, 2차: 2,200만원, 3차: 2,300만원	1. 초·중·고졸, 2. 1995년 11월 15일까지

2. 선발방법

가. 1차 서류면담
나. 2차 필기시험(사내시험 필자만 해당)
다. 3차 면접(필기시험 합격자만 해당)

3. 채용사실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1995년 11월 15일(수) ~ 1995년 11월 15일(수) (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지사는 09:00~12:00

5. 지원서류

가. 1. 1995년 11월 15일(수) ~ 1995년 11월 15일(수) (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지사는 09:00~12:00

6. 기타

7. 기타

제2의 중화주의를 꿈꾸는 중국에 가다 <1> 중국식 사회주의의 의미

지역적 강대국 도약 위한 건설 노선

사회주의 원칙을 전제로 한 시장경제 도입

중국 은 오랜 세월 한반도와 함께해온 나라이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주의 중추국임을 자부하면서 시장경제 도입 이후 더욱 강대해진 나라, 중국, 본토에서는 3회에 걸쳐 중국이 견고히 하는 지역적 강대국 노선을 진전해 보여 왔다. 편집자

- 글쓴이 순서**
1. 중국식 사회주의의 의미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전망
 3.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정 환 우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

중국식 사회주의의 의미

'중국적 특색이 있는' 정도의 표현에 해당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규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관점의 중국식 사회주의와 경제적 관점의 중국식 사회주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란 나후호와 톈중카이 등이 영도하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사회주의로서 이미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목표를 성취한 후 나타난 중국 특색을 반영한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는 사회주의인 허노 중국적 특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관념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중국 이름의 사회주의를 진화시키고 하는 노력은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대내외적 자율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로의 발전이 이행, 대안 운동, 60년대 초반의 부분적 개혁정책, 문화대혁명 등의 대내정책 변화와 대외정책 변화, 중간지대론, 3개세계론, 독립자주의 고노선 등의 대외정책 변화는 모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중국식 사회주의란 허노의 정형화된 사회주의 건설노선이 아니라 자신에 맞는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유래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에 관련된 한, 중국혁명만 사회주의 모국인 소련으로부터 독자적이고자 수행해온 과정이고 또 했다는 점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만 독립전쟁이 결합된 결과였다는 점은 중국식 사회주의로 하여금 건국 이후 대내외적인 전략적 정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즉 중국은 건국 이후 자국의 독립국가

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자국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구 소련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배태과정으로부터 중국으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독자적 접근으로 자국을 왔다. 건국 초기 중국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중국과 지도자들로 하여금 '소련이 중국을 자국의 위성국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을 것이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소련 공산당의 붕괴는 일관대중과 지도부를 막판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했고 이는 아마도 중국과 지속적으로 애국정신을 함양해 왔던 소련이 중국에 제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봉사였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혁명과 건설이 민족해방 혁명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소련과의 갈등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은 건국 이후 중국의 지도부가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대내외적 자율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로의 발전이 이행, 대안 운동, 60년대 초반의 부분적 개혁정책, 문화대혁명 등의 대내정책 변화와 대외정책 변화, 중간지대론, 3개세계론, 독립자주의 고노선 등의 대외정책 변화는 모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중국식 사회주의란 허노의 정형화된 사회주의 건설노선이 아니라 자신에 맞는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내용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의 현재적 특징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중국식 사회주의의 내용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대한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사회주의 원칙과 공산당 지도원칙 즉 계급투쟁을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양립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후호의 생선적 발전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혁명적 과정에서 형성된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시정정신이 여기에 그들의 혼신을 기울여 넣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진:한겨레21

인정하는 전제하에서의 시장도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의 공산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공산당의 지도에 바탕한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가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이 나후호 국가에서는 시장경제에 의한 생산력 발전이 우선적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에서의 시장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규정이 고정되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80년대 이래 시장의 역할과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획중심, 시장보조, 계획과 시장의 공동발전, 시장의 발전-거시경제정책의 대비 등으로 의미있는 입장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른바 현재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실체로는 유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사회주의 단계가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쟁거리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주의 정경안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전망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대외적으로 독립자주 원칙과 반제국주의 외교노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 양상을 살펴볼 수는 없으나 이런 대외관과 외교노선이 실제로는 어떤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잠깐은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 함의

그렇다면 중국식 사회주의가 지닌

문제제와 함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문제와 대외정책 문제를 나눠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양립이 주는 함의이다.

이는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의 의미를 '강력한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중국적 사회주의의 특징은 강력한 국가주도 하의 경제발전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발전전제는 가깝게는 이시대의 신흥공업국을, 일본 등으로부터 볼 수 있고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를 막판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후호를 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체제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압축적 인 인식은 나름대로 적실성을 갖고 있다.

다음은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의 의미를 '노동자·농민이 주도하는'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의 경우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중국식 사회주의의 의미는 노동자·농민 주도 하의 시장경제가 된다. 시장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자본가로서 시장경제는 소득주분과 기업의 실질적 불분, 그리고 노동중심의 소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농민의 전위대인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시장경제란 실제로는 기업이 지배하는 노동자·농민 체제를 말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경제수준이 중등발전국으로 되는 단계가

지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로서 그때까지는 현제와 같은 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 되면 노동자·농민의 전위대로서의 공산당은 그 의의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대외적 함의이다.

이런 언급대로 중국식 사회주의가 현실주의적이라는 것은 중국이 실제로는 지역적·세계적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간의 상호존중의 경향이 강화되는 현재의 추세에서 중국이 공세적 강대국으로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위에서 살펴본 중국에서의 실질적인 사회주의적 성격의 탈락이라는 경향과 결합해 민족주의적 경향의 대두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동시에 강력한 국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또한 대외관계에서의 독립자주 원칙과 평화화 협력원칙서 독립과 자민족의 통일성과 무관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발전방향은 이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응해 나가야만 하는 직접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대만의 통일정책과 전망

대만이 최근 취하고 있는 새로운 헌법의 외교정책은 지금까지의 '삼민주의 통일중국' 원칙과 이념적인 굴레를 벗어난 속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노리고 있다. 대만의 무실의교는 대만에 있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양인의 긴장관계를 주축한 완화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무력사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대만의 존재를 인식토록 한다는 단순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대만의 무실의교정책의 결실은 지난 6월 이통회의 미국방문이 정점을 찍었다. 미국 하원은 9월 1일 396:0으로 이통회의 미국방문을 승인했고 클린턴 정부는 이통회의의 미국방문이 단지 개인적인 신분으로 모교인 코넬대학을 방문했다는 것이 아닌 반미가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승인했다. 또한 이통회가 어떤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든 이는 미국과 대만간의 새로운 관계정착의 지평을 여는 것처럼 보여진다. 또한 이통회가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지 72시간 만에 행정원장 리엔젠이 동구방문을 선포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최근 대만의 무실의교정책은 중국이 대만을 흡수할 것이라는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만과 접촉을 시도한 모든 국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통회의의 미국 방문 이후 중국대사를 소환시키고 중미간의 예정됐던 상호방문을 모두 취소시켰다. 지난 8월 1일 소환된 중국대사는 대만에 대한 변화된 정책을 분명히 밝혔다.

'세계에는 유일하게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우리는 확고하게 평화통일의 방침을 관철하며 허외국세력의 중국대중에 대한 간섭, 중국주권의 침해, 중국통일의 파괴,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을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외국세력과 대만당국이 두개의 중국, 혹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에 결코 반

'하나의 중국'

원하는

중국의

무력정책



대한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만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할 경우 이전의 두가지 조건, 외국세력의 간섭과 대만이 독립을 주장할 경우에서 한가지 지를 더 추가했다.

즉 대만당국이 통일을 위한 연합할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새롭게 첨가된 이조건은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전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무력보조'라는 개념을 제출했다. 이는 중국의 통일정책에 있어서 무력사용의 완전한 포기를 있을 수 없으며 대만의 분열이나 독립을 방지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일부본인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을 실제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외교적인 성과는 미국의 대소 불협을 위한 중국의 전략적 기제 허락과 냉전의 종식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대만의 압력이라고 서로 결합해 이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이 원하는 것처럼 유엔의 가입이나 세계무역기구 등의 대만이 복귀하는 것은 중국이 완강히 거부하는 한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강력한 대외에서 대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중국과의 계속된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의 위엄을 강화시키고 내부적인 독립요구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점차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박 기 철

(본고 중국과 기사)



빙어빵 주식회사?

끼와 가능성을 사했습니다. 획일적인 빙어빵 인생은 사양합니다.

평가시험이 사라진다면, 입사시험이 사라진다면, 단련적인 지식평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능력과 자질을 평가합니다. 끼와 잠재력, 가능성을 사했습니다.

Q: 삼성은 왜 얼린채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지금과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이 커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학력과 건물을 차라리게 중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통계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고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1 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은 다양한 인재들이 자신들의 실력으로 세계를 당당히 겨루어야 할 시대에 살고자 하기에 '건넌보다는 능력, 획일보다는 개성, 획일보다는 유연성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얼린채들은 어떻게 하는거죠? 한마디로 학력에 관해서도 능력과 자질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끼와 학력과 지식중심의 평가에서 과학의 발달에 개인에게 정해진다는 종형의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단련적인 지식 평가(수능)의 평가시험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의사와 적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인재 유형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Q: 평가시험이 사라진다면 무엇보다 평가를 합니까? 평가방법이바로 얼린채들의 평가와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평가시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삼성 직무적성검사(S.S.A.T.)를 도입하여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적으로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는 시험이죠. 아울러 면접검사로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Q: 삼성 직무적성검사(S.S.A.T.)는 처음 들은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S.S.A.T.는 Sam Sung Aptitude Test의 머릿글자로서 삼성이 외부인력(외국)과 함께 2년여 걸쳐 연구와 사전 검증을 거쳐 개발한 것으로 근년 학력이 공제되며 새롭게 도입됩니다. 단순 지식보다는 직무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Q: 그렇다면, 영어시험도 인본은 겁니까? 네, 본도의 영어시험은 없습니다. 단지, 국제화 시대의 필수 기본소양이라는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의 공인시험(TOEIC, TOEFL) 성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단, 영어는 한자어 번역을 위해 편입된 TOEIC Test의 기출을 반영합니다.

Q: 마지막 질문인데,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막상 실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텐데요.....

물론 그런 염려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삼성이 이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검토해 보았으나 이는 오히려 노력과 능력있는 인재가만 학력에 관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삼성은 반드시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끼와 용기에 주신 것을 원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엔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열어갑니다.



□ 제2회 학술제 준비현황과 의의

학회 활성화로 시작되는 학술운동

학회백서·학술위원회 구성 등 성과 남겨야

올해 서울캠퍼스에서는 법대, 이대리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 예년에 비해 유난히 많은 학술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학술행사는 준비과정상의 많은 제약을 따르게 되고 따라서 많은 과들이 아직까지는 문화행사를 더 많이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된 제 2회 종합학술제가 오는 11월 6일(월)부터 10일(목)까지 개최된다.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간 진행되는 이번 학술제는 매우 원숙있음은 조경관원, 나머지 날에는 각 단과행사를 열고 10일은 모든 참가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일날 준비된 강연회는 "지역학의 실체와 그 운명, 그리고 외대"라는 주제를 통해 전체 주제인 지역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7일(화)은 법대 국제법학과가 강연회와 영화 상영, 사진전 등을 통해 "정신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8

일(수)부터 10일(목)까지는 동양어대의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4개과가 참여하는 등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개별국가의 시간을 다루게 될 계획이며 '차이와 동양의 연계'와 '이탈리아의 '이프가나스 난 천'이, 둘째날에는 베트남어과의 '베트남 전쟁의 성격 규명'과 중국어과가 준비한 '대륙·대만의 통일문제'가 다뤄진다. 전공학회의 성격 규명'과 중국어과가 준비한 '대륙·대만의 통일문제'가 다루어진다. 동대 학술부장 조상중(중국 어 과)은 "모든 지역학이나 전공학회가 갖는 한나 현실화돼 있지 못하다"며 "이번 행사가 자신이 배우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학술제의 취지를 밝혔다. 10일에는 동대기 준비한 민족 문화에 관한 초청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사법학과 상경대는 14·15일 각각 단과별 주제를 갖고 참여할 예정이다. 이 두 주제의 내용은 학정되지 않았다.

총학생회 학술부장 강병성(상영·포르투갈어 과)은 "이문동대에 수렴

은 학회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제를 통해 지역학이라는 주제에 기초적으로 접근해 지역학이나 전공학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캠퍼스에는 전공학회나 지역학회가 있는 하나 그 수준이 높지 못하며 많은 학생들이 "지역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기 매우 저조하다. 전공학회의 경우 일부 과에서는 몇몇 학생들의 스터디 모임으로 전락, 지역비 문제과 과학철학의 마찰을 겪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자발한 참여를 유도할 학회의 가장 큰 과제는 "지역학"은 "그렇다고 아무 준비없이 지역학을 학부 과정에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다. 지역학을 고안하고 준비하는 교수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학을 도입하는 것은 모방재만 갖춘 것일 뿐 내용적인 변화는 지체이다. 학술운동의 또다른 부인인 사회과학

회의 경우도 활동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강병성교수는 "예전에는 사회와 학회와 과학철학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철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맡아야 한다"며 "94년 학회를 스스로 '민생과 모색'이라는 화제연합을 구성하기도 했으나 많은 과가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학술제가 끝난 후 학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개별학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서울캠퍼스의 이태리과, 법대, 용인캠퍼스의 자연대·공대 등 많은 과 학생들이 학회에서는 전공학술제를 개최하고 앞으로 이번 단과·과학생회와 학술운동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태리과에서의 요구가 활발해지고 총학생회에서도 이번 노력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학술위원회"와 같은 전문적 기구가 생기기 위해서 제 2회 학술제는 학생중도 조성의 출력이 돼야 할 것이다.

박현숙 기자



이혜정(본고 철학과 84학번) 강사는 수업시간 내내 철학 앞에 서지 않는다. 학생들과 함께 둘러앉아 토론을 즐기고 때로는 질문을 던져 분위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교양선택 '가치와 행위'는 일정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조사·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 27일(금) 진행된 수업의 주제는 '여성해방'이다. 이날 수업에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고용문제 등이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됐다. 발표하는 동안 2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가 경청하는 모습이다. 발표가 끝난 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다른 수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러나 2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가 말해도 '토론'이 이제 막 12년간의 주입식 교육을 마친 세대들에게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듯하다. 토론에 참여하면 신동영(상영·내일날드 1)군은 "무언가 말해야 하는 게 부당스럽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더군요. 또 어문들의 격정과는 달리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걸요" 수업시간에 정해주는 주제도 일신종, 부의 분배, 인권 등 현대 사회와 많은 연관이 있어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화문화가 부족해서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명백히 강요가 아닌 대화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혜정강사의 말처럼 '가치와 행위' 수업이 진행되는 것의 실은 토론문화 확산의 작은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정유경 기자

□ 외대는 단 - 외대 사회과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사회와 함께해온 '정치학'과 '지역학'



민 반식 (본고 정치학과 명예교수)

외대 정치학의 발전 과정

외대에 정치학이 독립된 학과로 자리매김된 것은 지난 63년 12월이다. 이때 비로서 외교학과가 신설되면서 어학 위주의 특화된 기능에서 벗어나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이 접목됐다. 이 당시는 한일 회담 반대에도, 계엄령 선포 등 대학의 상황에서도 학부의 역할은 파행된 정치상황에 안도되고 있었다. 외교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치현실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담론적 변화의 요구 등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60년대 후반의 졸업생들은 의무부를 비롯한 관공제나 인문학과 같은 공적 부문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외대의 명분상 잠시 평명되었던 외교학과가 69년 초에 정치외교학과로 원래의 고유명칭을 되찾았다. 이듬해인 70년에 들어 대학원에 정치

과 석사과정의 개설되면서 정치이론, 국제정치, 비교정치, 한국정치 등 정치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이론이 어느정도 자리잡게 되었다. 이때의 정치·사회 환경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전 사회가 동일체제를 되면서 정치학도의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무관심으로 흐르게 되었다. 정치학에 대한 패권적 인식이 확산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실천의 흐름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냉소적 의식은 부정적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학문 탐구의 열정을 승화하여 외대 정치학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축적이 이뤄졌다.

80년대에 들어서지는 5공 정부의 한창시 교육개혁 조치가 일방적으로 단행되어 정외과 입학생들의 입학 평점이 이뤄졌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정외과 출신의 신진교수가 영입되어 새로운 연구영역의 수월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증주의의 논리에 입각한 지적 축적과 방법론의 세련화가 이뤄지고 정치과정, 정치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과 교수수가 행해졌다. 동시에 정외과에 박사과정이 설립, 체계화되면서 외대 정치학 발전의 새로운 전

기가 마련됐다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치학 연구의 전문화와 영역의 확대, 내적 충실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충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연구의 태동과 성장

1964년 해외사정 연구소로 출발한 외대에서의 지역연구는 초창기의 걸음마 단계를 넘어 70년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별로 독립된 연구소들이 생겨났다. 또한 국제사회의 다변화와 제3세계의 등장으로 다각적인 외교연구가 요구됐으며 60년대 전반기부터 시작 된 남미 이민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중남미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74년 7월 '중남미문제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창립 이후 76년부터 중남미지역 관련 학술지인 '중남미 연구'의 발행을 시작으로 중남미지역과 연관된 정치적 차원의 세미나 개최, 외부 연구 프로젝트나 학술사의 번역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남미지역은 물론, 지

역연구 전면에 대한 인식은 외대 내외를 불분하고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66년 외대에 중남미 지역학 연구소의 설립을 계기로 학부 연구의 전문화와 영역의 확대, 내적 충실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충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 중남미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편된 중남미지역 연구에서 벗어나 특정 주제별 혹은 국가간 비교 연구 등 영역의 전문화를 꾀했으며 88년에 창립된 한국연구원이 아프리카와 해외의 공동체나 학술활동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활성화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갔다. 최근에는 중남미는 물론 지역연구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대학원 지역학의 양적 확대와 함께 대학의 지위 상승에 대한 연구, 새로운 접근 등의 도입 등 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치학의 연구경향과 과제

우리 정치학계의 연구 경향 추이를

간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사회학자 논문은 미국 편중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실적에서 지역의 제반 학문 여건을 둘러싼 상황이 기반한 비가 크지만 학문적 시각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지역의 다양화가 요망된다 할 수 있다. 둘째, 분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연구나 관심의 중심이 어느 한 국가 혹은 분야에 치우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학부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론연구를 중심 주제로 한 논문 발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주목되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이밖에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는 정치학의 '한국화' 문제이다. 이러한 방향 학문의 패색적인 독자성만을 고집해서 안 되었던 외대 사회과학 연구의 일반적응에 대한 무의식은 자칫 우리 정치학은 물론 우리 정치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 할 위험이 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복합적 변화와 부분별 상호침투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정치학의 탐구영역도 정치경제학·정치사회학·정치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간의 연구분석의 현실적 필요성에 집중되고 있다.

토론문화 확산의 작은 시작



이혜정(본고 철학과 84학번) 강사는 수업시간 내내 철학 앞에 서지 않는다. 학생들과 함께 둘러앉아 토론을 즐기고 때로는 질문을 던져 분위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교양선택 '가치와 행위'는 일정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조사·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가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이 수업에 추천한다. 또 "대부분의 교양수업이 50-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하니 학생에 대한 내용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워요"라고 말한다.

이혜정 강사는 1학기에는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진행했으나 "철학이라는 게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수업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을 걱정도 했지만 참여도가 의외로 높아서 놀랐다고 한다. "요즘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학술 단신

자대·공대 학술문화제 열려 모현중학교와 함께 하는 자리

용인캠퍼스 자연대·공대 학술문화제가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열렸다.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의 도모'라는 취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모현중학교생들도 참여해 실질적인 교육의 지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보다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제를 다루는 등 기존 학술행사와 다른 특색도 보인다. 자연대 학생회 간담회(자연·통계 4)군은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연대의 위상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의의를 밝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연대 학생들이 학회에 대해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30일(월) - 전체 행사(대중동향)
- △31일(화) - 모현중학교와의 행사(장학금, 폐막식(대중동향))

정의와 학술제 개최 사회를 위한 실천 강조

서울캠퍼스 정치외교학과 학술제가 지난 26일(목)부터 오는 31일(화)까지 6일간(공방)과 대학원 10여개소를 진행했다. '지식인, 내 얼굴에 질을 뱉어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제는 26일(목)과 27일(금), '베니스'와 브라질 연회를 상상했으면 남은 기간동안 강연회와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의와 과학적 정체(공)은 "대학생들이 자본주의적 황폐문화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지식인이라면 본인 스스로 사회를 위한 비판의식을 갖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30일(월) 4시 - '이 시대 진정한 진보적 지식인의 삶은 무엇인가'(정운영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31일(화) 5시 - 학회발표회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 - 現代

"CD-ROM브로셔.., 역시 현대는 다르군요"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현대가 채용정보서비스에도 앞서갑니다.

인간중심의 이념으로 새로운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현대 -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창의력으로 미래를 주도할 인재들을 위한 첨단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으로 탄생한 국내최초 CD-ROM브로셔 -

21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현대의 모습에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지향하는 경영의지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업정보를 보다 빠르고 흥미있게 대학생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가 채용정보서비스에도 첨단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대 채용서비스

- 지원서류 간소화 (입사 지원서 1통)
- 지원대상 채용 확대
- 외국대학 졸업생 채용 확대
- 실습지원제 실시
- 자동차 디자인공모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등 대학생 대상 이벤트
- 국제화관련 특수업 전공자 채용 확대

現代

□ 금정굴, 그 현장을 가다

잘못된 역사속에 묻혀진 양민학살의 현장

우익단체등, 금정굴 시신은 모두 좌익·부역자라 억지

부서진 두개골, 토막토막 잘려나온 뼈조각들, 사야 문드러진 신발들, 처참한 학살의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M1 권총 탄피, 낫과 곡괭이와 동등이, 손발을 묶는 데 쓰인 끈들...

지금 고양시 탄현동 소재 금정굴에서는 45년동안 쉬어왔던 양민 학살의 현장이 재차라리 드러나고 있다. 9·28 서울 수복 당시 인민군이 패퇴한 후 무장부 산태에서 살았던 양민들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된 금정굴 유해 발굴작업 결과 지금까지 1천 5백여 점의 유골과 유물이 나왔다.

6·25 당시 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최대 양민학살일지도 모르는 '금정굴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이 금정굴 대학살 양민 유족회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족회는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공포와 피폐의식속에 살았던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고자 한다"며 진상규명의 목적을 밝혔다. 또한 유족회는 이의 진상규명과 함께 고분산 일



지금 고양시 탄현동 소재 금정굴에서는 45년동안 쉬어왔던 양민 학살의 현장이 재차라리 드러나고 있다. 9·28 서울 수복 당시 인민군이 패퇴한 후 무장부 산태에서 살았던 양민들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진상규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 참여를 공원으로 조성, 위험비와 위험담을 건립할 예정이며 가해자 처벌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유족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중계할 것이라 한다. 유족회는 이를 위해 대동맹, 내부부장관, 국회의장과 경기도지사 등에게 진

정서를 발송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우익 단체의 반발을 의식, 진상규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족회에서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6·25 좌익이나 부역자를 축출하는 일을 했다고 일러지는 우익계 비일관적 태도 태극군속에서는 금정굴에서 숨진 사람들은 좌익이나 부역자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족회는 "부모나 형제가 좌익이라고 그 가족까지 무조건 잡아 처형한 당시 우익 단체와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양민학살이다"며 위의 주장의 허위를 폭로했다.

금정굴 유족회 총무 마민순(여 51세)씨는 "유족들이 그동안 입은 불쾌·심적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진상을 모두 밝혀서 훈이리도 권히 받겠어 해아한다"며 "이렇게 잘 못된 우리 역사의 한 부분 부분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길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아직까지도 고분산 기슭에서는 유족회 회원들이 조를 편성해 친막을 치고 돌아가면서 밤을 새워 유해들을 지키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경비 마련과 더불어 유골감정, 수습과 안치, 역사적 평가 등 각 분야에 걸친 전문기자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확신했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 '금정굴 대학살 양민유족회' 총무 마민순씨를 만나

"부모가 좌익이라고 가족까지 죽인 건 명백한 양민학살"



앞으로의 계획은 = 정부가 진상 규명을 나서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다. 범의화자나 역사화자들을 통해 당시 상황 규명작업을 먼저 하고 이 결과를 정부측에 제출해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

또한 고분산의 약 1천명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위험담을 세우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 주민들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

발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으면 = 발굴비용만 1천여만원이 들었다. 모두 유족들의 돈이다. 앞으로 장례비용 등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상규명과 함께 이 비용이라도 지원했으면 한다.

누가 집단학살을 주도했다고 생각 하는가 = 태극군들 우익단체와 경찰이 나서서 했다. 당시 인민군에 의해 태극군 일 3천명이 숨진데 대한 보복으로 길거리 시골까지 좌익이라 지목하고 금정굴로 끌고와 처형했다. 부모나 형제가 좌익이라고 그 가족까지 무조건 잡아 처형한 당시 우익단체와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양민학살이다.

진상규명이 점점 왜가고 있는 시점에서 태극군 등지지는 어떠한 반동을 보이고 있는가 = 반성은 커녕 금정굴 유골발굴 현장에 도착장치를 하는 등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유족들이 진상규명이 이뤄진 뒤에는 서로 화해하길 바라고 있다.

□ 한총련 구국결사대 민자당사 점거

"청춘의 이름으로 민자당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0월 16일 오전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총련 구국결사대 소속 학생 13명이 여의도 민자당사를 점거했다. 이들은 오전 9시경 민자당사 지하 주차장에 모였다가 일제히 6층 정경위 의장실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민자당 심판, 5·18학살자 비호 김영삼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담아 민자당사를 점거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민자당을 준엄히 규탄한다.

민자당은 역사에 씻지 못할 대죄를 저지르고 있다. 5·18에 대한 경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표는 즉각적인 전국민적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그것은 김영삼정권과 민자당의 입장에서 검찰의 발표를 통해 명확히 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여 상성이 통하는 사회건설과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인 열망에 다다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104명 출동문을 들고 최루탄을 쏘며 의장실에 터뜨리며 진입하여 10분만에 전원 검거, 영문도 경호사로 연행했다. 이날 연행된 학생들은 전북대 3명, 경북대 2명, 포항공대 부산공대, 전남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화대 등의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전원 구속장치가 내려져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한총련 구국결사대가 민자당에 보내는 규탄서한 내용을 요약해서 실는다.

수십만명이 서명해 참가하고 교수님, 변호사를 비롯한 전 국민적 거리시위로 5·18학살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에도 정부와 민자당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학살자를 비호하고 있다. 이에 한총련은 전국민적인 요구와 분노를

정부와 민자당이 끝내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총련은 백만과도의 이름을 걸고 김영삼정권 퇴진과 민자당 해체운동을 4천만 국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준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해 백만화도는 전체 95%가 넘는 학생처벌의 의지와 동맹휴업의 결의로서 청년의 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한총련은 3명과 4명을 기해 2차 총궐기를 결의하고 있으며 학살자 처벌의 한걸음 내딛 것이다.

백병수 기자

사회 단신

조직사건 총남대에서 또 터져

총남대학교에서 '민족총남대 활동가조직'이라는 조직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18일(수)부터 양일에 걸쳐 현재 학생회 건물이거나 이전학생회 건물을 둘러싼 총남대학교 학생들이 '92년부터 사조직 운영'이라는 일방적 통지조로 강제 연행되었다.

이들은 안기부, 기무사, 경찰, 검찰등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자취방 등지에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수는 수사의 진행에 따라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수사발포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연행됐으며 주체사상 옹호, 연방제 찬양, 이적 표현을 제작 배포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총남대 학생들은 이번 사건을 5·18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조직사건이라며 반발. 18일 오후 6시경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12명 강제연행에 대한 항의행위를 진행했다.

사복경찰, 민노 사무실 불법난입

16일 오후 7시 5분경 민노총준비위 사무실에 신분증을 밝히지 않은 20명 가량의 사복경찰이 난입, 전화를 받고 있던 자동차조연방준비위 김승호 부장을 연행해 갔다. 이들은 수색장치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혐의하던 민노총(총) 집행위원 10여명을 폭행해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혔다. 또 연방준비위에서 사건을 찍던 여자간부는 무력으로 가슴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총대내 경찰총장은 오히려 "경찰을 보

여했는데 민노총 준비위원이 이를 찾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어 민노총(총)과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민노총(총)은 17일 오전 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찰 합동수사본부와 재판부지 학속 소사건 발생의 책임자처벌을 요구했으며 이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인총련 의장 김명옥군 연행

경기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의장 김명옥(아주대 총학생회장)군이 경찰에 연행됐다. 김명옥군은 조국평화발전위원회(명칭확정)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경인주·이재명 대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 13일(금) 수배되어 내려갔다.

그후 도과경찰을 하다 지난 26일(목) 오후 7시 30분경 한총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려대로 기던 중 수원원비스타미널에서 경찰의 불법진입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인총련 관계자는 "학살자 처벌과 비자극과 관련된 책임지 처벌의 요구를 무시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김명옥 의장이 석방될 때까지 투쟁할 뜻을 밝혔다.

한통 주요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10월 23일(월) 저녁 한국통신 본사 후정에서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유력상 중앙위원장을 비롯하여 12개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95년 원상상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와 공사측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에 반대하기 위하여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통노조에 한 간부는 "타사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는 한통노동조합의 당면한 급급한실정, 통신개방반대, 민영화반대등을 정부측은 국가전복세력이라 운운하며 30만 통신가족들의 순수한 소망을 짓밟았다"고 말하고 "300명의 구속자, 수천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중정계자를 양산한 소위 한통사태후 정부와 사측이 난동을 부려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씨를 말려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7777

지난 19일(목)과 20일(금)은 서울 지역 주요 대학가에 진영이 배치됐다. 외대생들은 삼일강 교문에서 방패를 든 진영들에게 외대생임을 증명할 후 출입했다. 지난 20일(금) 김대중에서 열린 예정이던 문화공연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부의 권력배출이 보였었다.

세계 최장기수 김신명씨의 석방한 영시 '김신명에게 희망을 그려에게 불멸을'은 우여곡절 끝에 약식으로 진행됐다.

가들 수 없는 겨레의 희망

최근에 석방된 제1회 한총련 의장 김명준은 "김신명 선생님이 '가뭄 연금'했다는 신문보도를 믿고 실지 않았다"라며 "김신명씨를 석방하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은 끝이 없다"라고 말했다. 49년만에 석방되고도 환영을 받아야 할 주인공이 "가뭄연금"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광원이 된 형사들 곳곳에서는 '현 대통령님 8·15 특별사면 때문인지 특별히 이렇게까지 신경쓰신다'라는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고통과 생명이 김신명씨에게 전하기 위해 만든 1995년의 종이와 종이 꽃 대바람 민가회 의장이 대신 밝기도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어머니는 자식의 얼굴을 물어보지만 "마음에 보여"라고 말했다. 김신명씨 계수의 "아주머니 45년간 그만큼 했으면... 전하도 하지 마세요. 다시는 어머니 볼 생각 할 구요"라며 시라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민가회 의장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이 사람은 45년간 가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집으로 아닌 사람이 수십년간 가두고도 문화공연인 행렬행사마저 가로 막는 정부에게 할 바래졌다"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승주 기자

S I N C E 1 9 6 1

35년 전통의 시사영어학원은 최고만을 추구합니다.

세계로 향한 발걸음
좁음의 도전입니다.

보다 넓게, 보다 많이...
세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젊음은 아릅답다.
세계로 향하는 첫 발걸음
시사영어학원이 도와 드립니다.
세계화의 도구미「시사영어학원」

- TOEIC 900
- TOEFL
- LISTENING
- TIME
- AFRN
- VOCAB.
- WRITING
- GRAMMAR
- READING
- 영어이해
- 시나메리
- 미국어회화(CELP)
- 한인회화(S.B.S)
- TOEFL 600
- GMAT
- GRE
- 대학원 종합반
- 통역대학원반
- 일본어 회화
- 일본어 문법/독해
- 일본어 능력시험반
- 일본어 통역대학원반
- 주립중반

세계화의 도구미
시사영어학원
종로2가 종로서적 뒤 TEL 734-2442



지난 20일(금) 열린 선고공판을 끝으로 박정희교수 사건은 일단 마무리됐다. 박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국가기밀 유지·수집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원칙이나 가족들은 형집행을 준비하는 등 박교수가 무죄를 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사진:한겨레21)

□ 박정희 교수 사건 정리

박교수 7년형 받다
조작의혹등 여러 의문점 남아

“본 법정은 피고 박정희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외의 회합·통신, 지령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한다” 지난 4월 25일 0시, 박교수가 영문도 모른 채 안기부에 끌려간 이후, 6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1심 재판은 이 한마디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남겨져 채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서태수 씨가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더욱 신뢰했다는 점과 박정희 교수를 재판한 박헌서 교수가 자신이 살기 위해 박교수 사건을 안기부와 함께 조작했다는 등의 많은 의혹을 남기고 끝이 났으며 이런 고등법원에서의 심정을 알았고 있다.

1.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 서태수를 만난(회합, 통신)
2. 서태수의 지령에 따라 한일관계문제, 국민학교 명칭 개정, 미쓰시로 대법원 문제, 동도 문제 등을 조사, 연구했다.(지령수수)
3. 서태수의 지령에 따라 박헌서 교수를 소개시켜 주었다.(지령수수)
4.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에 갔다(잡담, 탈출)
5. 서태수의 지령에 따라 신문 등을 소개하여 보고했다.(기밀탐지)
6. 긴급성사망 예도로, 김영일생일 축하문을 작성하여 서태수에 전달하였다.(한일교섭)
7. 이력서를 준비하여 노동당에 일당하라고 하였다.(반국가단체 가입)
8. 북에 생존해 있다고 알려진 체제 형인 박용희와 편지를 주고 받았다.(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러한 경조장 내용에 대해 박교수의 변호인측은 조목조목 증거를 대며 대항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는 박헌서 교수의 증언과 박정희 교수의 재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박교수는 이미 대법원보사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듯 안기부, 검찰에서의 가족평화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조서에 사인을 했다. 그러므로 재판은 증거가 될 수 없다. 둘째, 안기부서 박헌서교수를 이용,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을 지을 수 없다. 그는 재야운동에서 주축이 안기부의 관심과 희유를 받아왔으며, 한문헌 사건과 관련 안기부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박헌서 교수의 조서가 호텔에서 하 부만에 꾸며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작의 의혹이 있다. 셋째, 서태수라는 사람이 정말 북한 공작원이냐 하는 점이다. 서태수는 평생을 학문에 몰두한 사람이며 자신의 부모형제는 남한의 대구에, 아내의 부모형제는 북한에 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조선’이라는 국적을 버리지 않고 통일의 한국이라고도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자녀들은 모두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북한 공작원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 제시는 검찰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재판부는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대사관에서 서태수와 관련해 보내온 ‘서태수가 조종원이라는 첩보가 있음’이라는 검찰측 증거를 채택하면서 서태수를 북한공작원으로 인정했으며, 박헌서교수의 조서가 호텔에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헌서교수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박교수 증언이 가족평화를 통한 허위였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심대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강하면 충분히 이번 사건이 조작임을 밝힐 수 있으므로 무죄판결이 가능하다”며 형사소송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박정희 교수 사건 일지

- 4월 25일(월) 0시 박교수 안기부 연행, 이후 20일간 안기부에서 수사
- 4월 27일(목)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으로 구속
- 5월 15일(월) 서울 구치소 이감, 검찰 수사 시작
- 6월 8일(목) 박교수, 이기범 김사의 감금수사에 대해 고발
- 7월 5일(수, 12일(수)) - 1, 2차 공판 - 검사 심문
- 8월 9일(수, 21일(월)) - 3, 4차 공판 - 변호사 심문
- 9월 14일(월) 5차 공판 - 증인심문, 피고측 증인(박건희, 조덕승, 윤성식, 김은진)
- 9월 18일(월) 6차 공판 - 증인심문, 피고측 증인(박문희, 허진석, 우정환) 검찰측 증인(박헌서)
- 10월 22일(금) 7차 공판 - 증인심문, 피고측 증인(이지와), 검찰측 증인(김학규 등)
- 10월 19일(월) 8차 공판 - 변호인 추가 반대심문과 증인 심문, 피고측 증인(이무정)
- 10월 16일(월) 9차 공판 - 결심공판, 이기범 검사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변론, 박교수 최종 진술
- 10월 20일(금) 10차 공판 - 선고공판, 박교수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받음



□ 박교수 사건 담당 변호사 김재완씨를 만나

“형법상 간첩죄로도 국보법

목적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의혹이 남는 부분은 어디인가
= 처음 기소 내용 중 가장 무거운 혐의인 국가기밀 탐지 수집 죄가 대부분 무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찰은 박교수의 스크랩을 서태수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죄목으로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 내용은 자취해 알려지지 않으나 정부가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할 한문헌의 의향인 박정희의 일인인 신기규를 만났다는 것이다. 한문헌은 국가보안법 위반 때마다 심심찮게 나타나는 문제지만 검찰의 입장은 반 국가단체라고 보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문헌과 관계된 사람들에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란 법칙이 없다고 할만큼 한문헌에 대한 변론과 검찰의 태도는 매우 엄격했다. 이것으로 보아 자신이 살기 위해 안기부와 타협하여 박정희 교수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또 한가지 과연 서태수란 자가 북한의 공작원인가 하는 것이다. 검찰측에 그가 공작원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순히 박헌서 교수의 증언만 거

지고 그를 공작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 그는 고려사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그는 조선 국적을 가지고 부인은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스스로 남한국적을 선택했다. 그 사명을 공작원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 국가보안법은 구성요건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인권침해적인 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국가 기밀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준이 불확실하다. 박교수의 경우에도 단지 일간신문을 스크랩했다고 하여 혐의를 씌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이 만약 필요하면 실제 감금이야 국가를 건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실제 감형에 있어도 재야운동가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꼭 필요하면 형법에서 간첩죄를 보충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법권 기자

□ 수감중인 박정희 교수를 만나

“하루빨리 학생들을 보고싶다”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문대군에 관사도 마음을 썼지만 7년형 확정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안기부에서나 검찰에서의 감금수사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고 증거자료들이 보강된다면 1심을 충분히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재판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 그간의 허위자백을 반복하고 사실대로 진술을 밝힌 이유는
= 솔직히 처음에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안기부 지시하에서 갇힌 채 30일동안의 감금수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입된 허위사실들에 내 마음이 갖혀버렸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기부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를 전반적으로 부인했을 경우 재판부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했던 것 같다. 북경대사관이나 아카사카프린트소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정했던 부부도 간첩행위를 한 사실만 부인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안기부나 검찰의 수사내용을 일부 인정할 것들이었다.
=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크게 느낀 바가 있다면
= 최후진술에서도 밝혔듯이 나는 60평생 국가보안법의 존재 취지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 법이라고 생각했다. 나 또한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교육자로서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조그만 이력이기도 되기 위해 교편을 잡았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은 원래 취지에 벗어나 이상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절대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이용된다면 안간다고 생각한다.
= 의뢰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나의 결백을 믿어주시길 정말 고맙기 그지없다. 학생들이 편지를 통해 용기를 잃지말라는 격려를 보내올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
= 별로 어렵지 않다. 구치소 직원은 도 할 대로하고 있고 형들이 삼각구, 일격검, 문화전집 등을 읽고 있다. 간식을 안받으면서 혼자 있을 수 있으니 꽤 편하기도 하다.
= 힘든 점이 있다면
= 가끔씩 내가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짊어질 때마다 느끼고 있다. 이 안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상태로 있다는 생각이 들때면 가장 힘들다. 그리고 하루빨리 학생들의 생기가 있는 눈동자를 보고 싶다.
박정희 기자

□ 사학과 과회장 모성훈(인문·사학 90)군을 만나

“이번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을 확신 합니다”

사학과대책위는 그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가
= 4월 26일 박정희교수 긴급구속 후 4월 26일 비상대책위를 열고 사학과대책위를 결성하였다. 5월 1일에는 이문·완산 공동대책위가 꾸러져 서울캠퍼스는 인강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사학과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조작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지하 철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6월 초까지 전개하였으며, 학내에서도 강의실 모금등과 함께 선전전에 주력하였다. 5월 26일, 27일에는 이기범검사와의 구두타사에 항의하기 위해 검찰청 앞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6월초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공판집합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 이번 사건이 조작된 것에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사학과 학생들의 분위기는 경악 그 자체였다. 박교수님의 평소평등을 봤을 때 절대 간첩행위 같은건 하신 분이 아니셨다. 나중에 밝혀진 감금수사 사실이나 안



기부수사 결과에 틀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선거운을 앞둔 조작사건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 박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던 2학년 학생들에게 안기부에서 시달릴 것을 제언하면서 솔직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후배들이 아주 단단하게 들은 듯이 이번 청상교도 담안자를 박교수님에게 직접 재정을 받을 수 있었을 때 매우 기뻐했다.
= 1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먼저 드는 생각은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이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수많은 조작의혹들이 제기되고 밝혀졌지만 검찰측의 몰진심은 심중함이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당성과 모호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그렇다치더라도 한가닥의 희망을 가졌던 재판부가 진실을 재버리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
= 앞으로의 대책위 활동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 사건이 타진지 6개월이 넘어 들었다. 이런 장기전이다. 대책위를 통한 활동을 정리하고 후방지원체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속된 법정투쟁에 드는 비용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유도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이번 1심판결까지를 정리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박정희 기자

신뢰의 쌍용 세계와 함께

쌍용의 품질과 신뢰 - 프린터로 이어집니다

쌍용 레이저아트+ LaserArt+

아래 기능을 함께 지원하는 저가 프린터는 레이저아트+뿐!

- RAM 2MB(최대 10MB)
- 600DPI급 양방향 GD 지원
- 페리 및 시리얼 기본지원 (Mac 지원·옵션)

SP-300V # SP-3500H(형광등) # SP-430+
 # SP-300 # SP-4000 # SP-4200(형광등)

21평형 프린터는 쌍용정보통신 (주) 080-900-8272 (형광등)

양캠, 모교방문의 날 활발히 진행

재학생·졸업생의 유대감 강화의 장으로

중간고사 이후 서울·유명대학 캠퍼스에 각 각과 동문회 중심의 동문 선배 '모교방문의 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 재학생·졸업생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 '해' 외방문의 날을 찾아서'란 주제로 10월 28일(토)의 날이 법과계 총동문회와 학생회 주최로 지난 28일(토) 대운동장과 교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외방문의 날은 98년 3회 동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졸업 선배와 재학생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강하며 남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 '한국어와 총동문회'가 중국어와 학생들의 졸업·재학생의 참여

가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연어·레퍼 공연, 스승과의 대화, 경품 추첨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를 준비한 이희승(2)은 "중국어와 발전안을 논의하고 선배배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 의의를 말했다고 "6년만에 부활하는 행사가 준비하는데 힘들었다"며 어려움을 밝혔다.

○ 영어교육과는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동문회 부활을 목적으로 지난 28일(토) 회기역 일 채원부에서 '동문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회합을 도모할 제7회 경제인의 밤이 오는 4일(토) 명동 세종호텔 대금강 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졸업생 중에서 경제학과에 위상을 높인 사람에게 '제 2회 경제인' 상이 주어지며 학교전경과 수업, 체전 등의 장점이 담긴 비디오도 상영될 예정이다.

○ '교수·동문 그리고 재학생 3자가 하나가 되는 포럼'과 '동문인의 밤'이 재학생과 졸업생 1백20여명의 참석으로 용인캠퍼스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은 체육대회·동반대회·여학생 출품전·취업정보 제공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와 관련 홍신민(3)군은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과가 하나로 뭉쳐져 진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용인

○ '지난 28일(토) 제1회 언어인이 밤이 약 1백70명의 참석으로 자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은 체육대회·재학생과 졸업생 공연과 장기자랑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준비위원장 김재훈(2)군은 "선후배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됐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회합을 도모할 제7회 경제인의 밤'이 오는 4일(토) 명동 세종호텔 대금강 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졸업생 중에서 경제학과에 위상을 높인 사람에게 '제 2회 경제인' 상이 주어지며 학교전경과 수업, 체전 등의 장점이 담긴 비디오도 상영될 예정이다.

○ '교수·동문 그리고 재학생 3자가 하나가 되는 포럼'과 '동문인의 밤'이 재학생과 졸업생 1백20여명의 참석으로 용인캠퍼스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은 체육대회·동반대회·여학생 출품전·취업정보 제공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와 관련 홍신민(3)군은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과가 하나로 뭉쳐져 진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용인 확대운위 개최

5·18투쟁·총학선거 논의

△5·18 투쟁 일정 △박정희학교 구 수형광판 보고 △총학생회 사설 입보 △총학생회 선거일정 확정 등을 안건으로 용인캠퍼스 확대운원관 회의가 지난 24일(화) 열렸다.

이날 '5·18 학살자 기소관원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통일왕산 투쟁본부' 위원장 서양학대 학생회장 정발봉(영여 4)은 "범의 대인 선언으로 의대의 3주제인 교수·학생·지역인 학살자를 처벌하는 데 앞장서자"라며 "앞으로 선언문 한편에 한명도 안의선서명과 신문광고 등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총학생회와 학자사업 내용은 △학생회관·승차장 야외공중전화기 각각 2대씩 설치 △교내 안내 표지판 교체 △각 강실 벽도장수 표지판 설치 △11번직영자정 정상운행 △소

각장 시험가동(11월중 실제 가동, 교내 분리수거함 설치) △삼상 선 586킬로터 16대 설치 △과과방직 설치 △수어문판간식 식탁 보·의자보충 △노천극장 지붕설치 11월중 공사 착공 △명수당 앞편 외대미크의 조경사업 추진 등이 보고됐다. 명수당 조절석과 관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제 17대 총학생회 선거일정과 관련, 선거는 오는 11월 22일(수)·23일(목) 양일간 치루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중앙운영위원으로 꾸러지고 후보 등록은 11월(월) 오후 6시까지이다. 각 단대선거도 22일(수)·23일(목) 치루되고 동인연합회의 총학생회로는 21일(화)·22일(수) 치루된다.



에비역 족구대회

에비역들을 하나로 묶어낸 서울캠퍼스 에비역 족구대회가 지난 23일(월)부터 일주일간 연수원 야외 노천극장에서 치러졌다. 마지막날(27일) 있었던 결승전에서 용인대학교가 중국어과를 3: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이밖에도 오는 31일(목)과 주회 족구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학단신

서울

전국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교육부가 후원하고 대한항공이 협찬하여 본교가 주최하는 제 15회 전국대학생 외국어 경시대회가 지난 28일(토) 본교에서 실시됐다. 본 대회는 총 6과목 3백여명이 실력을 겨루었다.

경시대목은 영어·영어·영어·중국어·일본어·서번어 등 6과목으로 수필·번역·회화 3부뿐이며 배정 비율은 수필 30%, 번역 30%, 회화 40%이다.

각과목별 최우수 1명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 1백만원, 우수상 2명에게 본교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본교 총장상 및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 및 발표는 11월 17일(금) 11시에 본교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 23회 총장배 테니스대회 열려

제 23회 총장배 정장 테니스대회가 지난 28일(토)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육사 갈매리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교내 테니스 보급과 실력향상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우승팀에게 라켓, 준우승팀에 테니스 가방을 수여했다.

테니스부 회장 나용준(상경·경계 3)군은 "제 2 다목적연구동 건립으로 테니스코트 폐지되어 육사의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며 "코트가 없는 가장 큰 난점이다"라고 밝혔다.

박교수 공판 비용마련 바자회 개최

'박정희학교 공판 비용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학생복지위원회 주최로 지난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농구장에서 6일간 열렸다. 옷, 생활용품, 잡화류 등이 판매된 이번 바자회를 준비한 이용민(법·법학 3)은 "예상외로 호응은 좋았으나 20일(금)·21일(토) 정경들의 교문경로로 주민들이 출입이 통제돼 피해가 컸다"라고 행사진행의 어려움을 밝혔다.

서양대대 서우제 진행

서양대대 학생회는 마비되어 다다른 학생회 사업을 정리한다는 취지로 오는 31일(화)부터 이틀동안 서우제를 연다. 9개학과의 참여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길거리 농구대회, 가네스북 경연대회 등 총 6개의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기획부장 양성태(영여 3)군은 "9개학과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국제형식으로 꾸며진다"라며 행사내용을 밝혔다.

용인

박교수 후원 바자회 열려

'실정형 어린이와 박정희학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지난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총학생회 주최로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보하이 다이어트 마케팅의 후원으로 열린 이 바자회에선 옷·뷰티·신발·지갑 등이 판매됐다.

이 행사와 관련 총학생회 정형부장 도영봉(서·화·리더 1)군은 "박정희교수님을 무라카미방식이 위한 노력에 학생 모두가 동참했으면 했다"라고 밝혔다.

에이스, 테니스 대회 개최

테니스관 에이스는 지난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대항 테니스대회를 열었다.

우승자 및 팀은 스바나 단식 우승·준우승·배상철(서·무학 4)·이소일(동·주·체코 1)·이재식(서·무학·준우승·장민희(동·화·이남 3)·정원하(서·화·불어)·남자복식 우승·준우승·배상철(동·주·체코 2)이다.

이 대회와 관련 에이스 회장 이규찬(자연·재어 계속 2)은 "작년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다"라며 "내년에는 체전종목으로 채택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부안 계획미 직거래 장터

주인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장터는 20kg 포장미를 2천5백원에 판매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경수(정학·신방 3)군은 "유동구조를 개선한 직거래로 생산에 양질의 쌀을 지역주민과 외대생들에게 전달했다"라며 "부안 농민들과의 연대를 이어주는 장터였다"라는 의미를 밝혔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7일(금)부터 3일간 부안 계획미 직거래 장터를 붉은광장에서 열었다. 이문동

노조 창립 8주년 기념행사

민형대세 등 9명 우수조합원 표창

노조 창립 8주년 기념 및 단합대회가 지난 21일(토) 저녁노동총회(위원장 박정호)주최로 팔복산에서 개최됐다. 노조원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창립 8주년을 기념하며 기념식과 민형대세 등 9명 인문관 인선시 세를 비롯한 9명의 직원에게 우수조합원 표창을 했다. 이어 진행된 단합대회는 보물창, 장기자랑을 내용으로 치러졌다. 노조 사무국장 임홍순 씨는 "노조 8주년을 지극히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기회가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인문총학 삼환기업 고발

지난 6일 후생복지관 화재 이유로

지난 6일(금) 발생한 용인캠퍼스 후생복지관 공사장 화재와 관련, 인문총학 총학생회는 용인군청 환경보호과에 삼환기업의 폐건축조재의 불법소각을 지난 28일(토) 고발했다.

총학생회는 이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지기 직전이었다고 이 불법소각은 삼환기업에 이복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진정서

핸드볼부 한일친선 교류전

3일 고베·나고야 대학 방한으로

한일친선 교류전이 핸드볼부 주최로 오는 31일(토) 대운동장에서 일본 고베·나고야 대학 본교 핸드볼부 대항으로 치루된다. 일본대학의 방한으로 치루되는 이번 경기는 1시 고베 대학, 3시 나고야 대학과의 경기 순으로 진행되며 경기후 교수실에서 다과를 겸한 한일친선의 밤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29년간 역원으로 서로 방한하여 치루되는 한일친선 교류전을 준비한 핸드볼부 주장 송인환(동인·중국어 3)은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을 통해 일본인을 만나 활발한 국제교류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한·중·일·대인 외국어대를 연결하는 외대정기전을 계획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는 핸드볼부는 현재 11명의 부원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1996학년도 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大學院 (☎ 961-4104, 962-7117)	經營情報大學院 (주간) (☎ 961-4119, 965-7046)	教育大學院 (야간) (☎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학과명 가. 석사학위과정(6개계열 39개학과): 각 학과 약2명 이 문 학 계: 영,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일본어, 아랍어, 이탈리아, 헝가리, 국어국문학, 포르투갈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유럽어문학, 언어학, 스칸디나비아어 인문과학계: 철학, 사학 지 역 학 계: 아주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유럽지역, 북미지역, 아프리카지역, 서구지역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신설) 공 학 계: 컴퓨터공학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 및 연구과정 각 00명 2. 모집학과: 경영정보학과(MIS, 재무·회계·생산·유통관리, 조직·전략전공) 융합전산학과(소프트웨어공학전공) 3. 시험과목: 1) 영어 2) 구술시험 4. 원서교부일: 95년 11월 11일(월)부터 11월 15일(수) 17시까지 5. 시험일시: 95년 11월 23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본 대학원은 원전학문 분야인 경영정보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주간 석사학위과정 * 교육의 목표는 현대경영학이론과 첨단컴퓨터 이론을 접목시켜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MIS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음 * 전용 경영전산센터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음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각 전공 00명 2. 모집학과: 국어교육, 영미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상업교육, 유아교육, 전자계산교육, 수목교육(신설), 물리교육(신설), 화학교육(신설)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 95년 11월 13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 5. 원서접수: 95년 11월 20일(월) 11월 24일(금)까지 6. 전형일시: 95년 12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 원외교사에게는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 원외교사, 교장, 교감 및 장학사, 연구사, 교육행정직(5급이상)에 재직중인 자는 특별전형
나. 박사학위과정(6개계열 24개학과): 각 학과 약2명 이 문 학 계: 영,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일본어, 아랍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인문과학계: 철학 지 역 학 계: 국제관계연구학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수학, 물리학, 화학 공 학 계: 컴퓨터공학(신설)	世界經營大學院 (야간) (☎ 961-4109)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0명 2. 모집학과: 가. 경영학석사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해외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증권금융학(신설) 나.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 세계지역연구학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95년 11월 13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5. 전형일시: 95년 12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 국가공무원 기제제 간부는 특별 전형임 * 해외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무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국가공무원 및 군·경: 각급학교 교직원에게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기: 본 대학원을 세계경영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하였음	政策科學大學院 (야간) (☎ 961-4093, 962-3950)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0명 2. 모집학과: 공공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공공감사학과(공공감사전공) - 신설 의료인보육학과(의료인보육정책전공, 복학전공) 신문방송학과(신문전공, 방송전공) 광고홍보학과(광고전공, 홍보전공)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95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5. 시험일시: 95년 12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우대 * 국가공무원(군·경·도)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